

황토현전승일 제정 의미 더한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11일 정읍 황토현전적서 열려
생활방역 체제 전환 속 안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철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오는 11일 오후 3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 황토현전적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진섭 정읍시장, 윤준병 당선인 등 정·관계인사,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로 제정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개최됐다.

올해는 황토현전승일 제정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 황토현전적(사적 제206호)에서 두 번째 기념식이 개최된다.

기념식은 현화·분향, 국민예배, 기념사 낭독,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영상 상영,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생활방역 체제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제가 전환된 상황에서 시는 기념식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행사 전 행사장과 행사물품 방역, 비접촉 체온계와 손소독제 준비, 마스크 의무 착용, 응

급차량 대기 등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길 조성 등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을 위한 각종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세계화·미래화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억압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동학농민군이 버티던 열원을 마음에 새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해 도민문화정책발굴단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

우리고장 문화정책, 우리가 직접

전북문화관광재단, 13일까지 도민문화정책발굴단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2020 도민문화정책발굴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재단에 따르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을 도민이 직접 발굴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20 도민문화정책발굴단' 운영에 참여할 발굴단장과 발굴단원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11개 시·군 중 작년 활동을 진행한 3개 시·군을 제외한 8개 시·군(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의 문화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발굴단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발굴단은 라운드테이블 운영 및 단원 관리를 담당할 단장을 포함한 최대 6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청된 발굴단은 지역에 산재한 현안에 대한 문화정책 및 사업 발굴 논의를 진행

하고 발굴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화정책 사업을 관계기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발굴단 운영이 진행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2개 발굴단에는 라운드테이블 운영비 및 회의비, 전문가 컨설팅데이,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이 지원된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다운받아 이메일(hansu@jct.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도민문화정책발굴단 시범운영지역으로 2018년 '도민문화정책발굴단 in 정읍'을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정읍문화원, 순창 Bovo문화관광연구소, 고창 청유당 등 3개 단체를 선정해 활동을 진행했으며, 각각 2020 정읍시 문화비전 선포 협의, 순창 청년정책 발굴, 고창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올렸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온다라 교양 플라자' 성료

온라인 강의로 대체 진행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이하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문 교양강좌 '온다라 교양 플라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다라 교양 플라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해 진행됐으며, 총 6주간 '전라도의 풍류·맛, 멋, 기억', '돌고 도는 돈, 눈 먼 돈: 화폐 이야기', '전라도 마이 너리타의 무신년 반란' 등 근현대사·인물·지역문화의 특징 등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로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주부, 직장인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진우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올바른 인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는 △소담소담, △공.감.대,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등 다양한 인문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 안내 및 문의는 전주대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220-3201~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10일 소리문화전당 명인홀서

전주대 이주용 교수 피아노 독주회

전주대학교 이주용 교수(음악학과)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0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개최된다.

이 교수는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협연자 오디션에서도 우승을 거두며 뛰어난 연주 실력과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이번 독주회를 통해 화려한 기교와 아름다운 선율을 시민들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낭만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세자르 프랑크(Cesar Franck, 1822-1890)와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의 곡들로 구성된 이번 독주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조우했던 19세기 낭만과 시대 두 거장의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 교수는 "프랑크와 리스트, 두 작곡가는 비슷한 지리적, 시대적 배경에 살았지만 그들의 삶과 음악적 성향은 매우 다르다. 이번 연주회에서 두 작곡가의 대비되는 삶과 음악을 투영해보고 싶다"며, "두 거장의 음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용 교수 피아노독주회는 전설초대(무료)로 진행되며, 문의는 전주대 음악학과(063-220-2392)로 하면 된다.

이 교수의 독주회는 전주 공연에 이어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도 5월 17일 1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여파 임시휴관' 벽골제관광지, 정상운영 재개

코로나19로 지난 2월 21일부터 임시휴관했던 벽골제관광지가 6일부터 정상운영을 재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던 벽골제관광지가 다시 관광객을 맞아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은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시설,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등 벽골제관광지 내 모든 시설이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운영재개에 앞서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 추가 소독을 실시하고,

입장객 마스크착용 및 발열체크,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관광객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은 "벽골제관광지 시설에 대한 사전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입장 전 마스크착용 및 발열 여부 체크확인을 시행할 예정에 따라 관광객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재=락보대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